여러 나라, 한마음: 홍콩, 브라질, 몽골에서

Sarah · 2026년 11월 2일

AI 요약

지난주, 북한 주민들을 섬기고자 하는 공통된 열망을 가진 두 단체가 예배, 간증, 기도의 밤을 위해 함께 모였다. SAVE NK와 KAIROS 간의 모임으로 시작된 것이 그 이상이 되어, 서로 다른 국가, 배경, 삶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격려할 기회가 되었다. 그날 저녁은 SAVE NK 청년들이 인도하는 예배로 시작되었다. 예수님과 북한에 마음을 모은 채, 참가자들은 개인적인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다. 다른 이야기, 하나의 마음 진실한 마음, 따뜻한 말, 깊은 열정으로 카이로스 그룹 회원들은 그들의 삶의 이야기,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리고 북한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나누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북한 관련 사역에 수년간 헌신한 후, 홍콩에서 온 한 부부는 그들의 경험과 지속적인 헌신에 대해 나누었다. 이는 사람들...

지난주, 북한 주민들을 섬기고자 하는 공통된 열망을 가진 두 단체가 예배, 간증, 기도의 밤을 위해 함께 모였다. SAVE NK와 KAIROS 간의 모임으로 시작된 것이 그 이상이 되어, 서로 다른 국가, 배경, 삶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격려할 기회가 되었다.



그날 저녁은 SAVE NK 청년들이 인도하는 예배로 시작되었다. 예수님과 북한에 마음을 모은 채, 참가자들은 개인적인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다.

다른 이야기, 하나의 마음

진실한 마음, 따뜻한 말, 깊은 열정으로 카이로스 그룹 회원들은 그들의 삶의 이야기,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리고 북한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나누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북한 관련 사역에 수년간 헌신한 후, 홍콩에서 온 한 부부는 그들의 경험과 지속적인 헌신에 대해 나누었다. 이는 사람들이 이 사명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브라질에서 온 참가자들도 그들의 여정 일부를 나누었다. 선교 활동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섬길 준비를 하든, 전문 기술을 사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국제 개발 협력 분야의 경력을 통해 섬기든, 혹은 최근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나누었다.



그들의 이야기와 길은 달랐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그들의 삶과 일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알린다는 공통된 목적이 그들을 연결한다.

몽골에서 배우다

이 모임은 또한 몽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환영했으며, 그들은 몽골에 대한 그들의 경험과 통찰력을 나누었다.

그들은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및 북한과의 연결을 포함하여 몽골의 몇 가지 특이점을 소개했다. 이 지역에서 몽골의 위치와 관계는 북한과 관련된 미래의 교류 및 지원 기회를 고려할 때 이해해야 할 중요한 장소로 만든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며,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큰 특권이다!

기도로 서로를 격려하다

그날 저녁은 특별한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SAVE NK 회원들은 카이로스 손님 각자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여, 그들의 삶, 미래 계획, 그리고 사역을 올려드렸다.

그것은 강력한 격려의 순간이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느껴졌고, 그들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온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기꺼이 동행하려는 공동체의 지지와 기도를 받았다.

모임 후, 참가자들이 계속해서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사실이 분명해졌다. SAVE NK 회원들은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격려를 받았다. 동시에 KAIROS 참가자들은 SAVE NK 공동체로부터 받은 따뜻함, 기도, 격려에 똑같이 축복받았다고 느꼈다.



두 단체 간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이 공유한 모든 것이 두드러졌다.

사역, 직업 경로, 국적, 섬기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동일하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이 모임은 우리가 이 사명을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서로를 강화할 수 있다.

SAVE NK와 KAIROS 간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짐에 따라, 언젠가 북한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려는 공동의 희망도 커진다.

이 문서는 LinkAsia (linkasia.net) 에서 생성되었습니다.